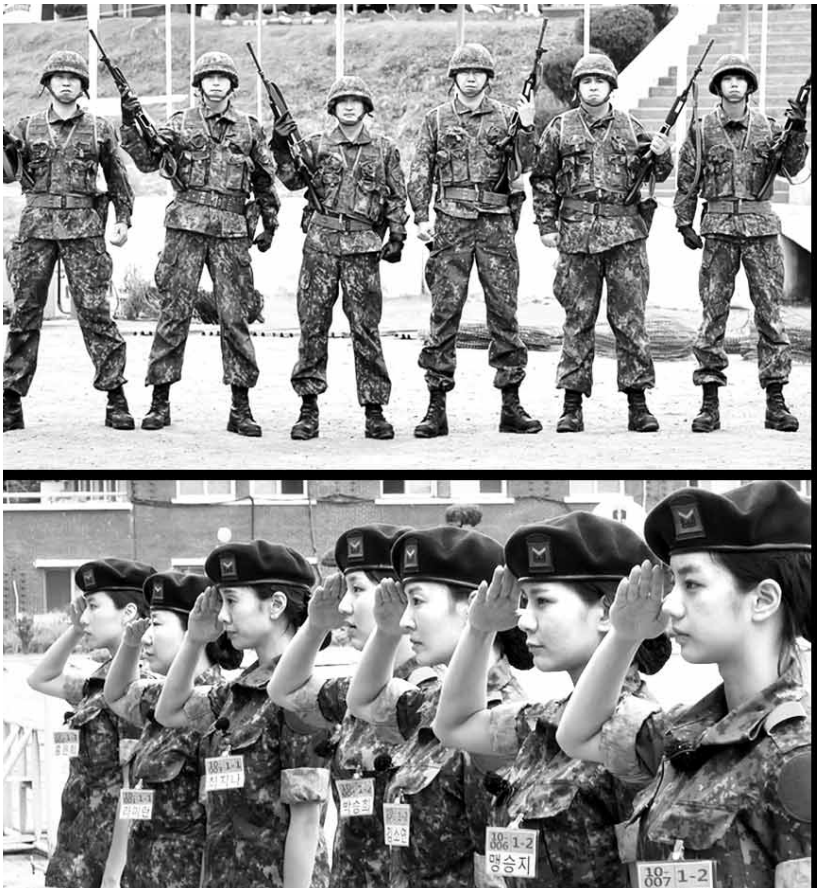




MBC ‘일밤-진짜 사나이’ 3년 반만에 전역

‘시즌3’ 준비 위해 휴식 ... 내달 4일부터 후속작 ‘은밀하게 위대하게’ 방영

군 생활을 소재로 한 MBC TV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가 3년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동안 ‘진짜 사나이’가 배출한 남녀 장병은 배우, 가수, 개그맨, 운동선수 등 109명에 달한다.

시청률은 2013년 4월 첫 방송 이후 거의 10%대를 유지해왔고 한때 20%에 육박하기도 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최고 시청률은 여자 연예인들을 대거 입대시킨 첫번째 ‘여군특집’ 편을 선보인 2014년 9월의 19.8%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 마지막 방송된 ‘진짜 사나이-상남자 특집’ 편 시청률은 8.8%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 끝마리에서는 3년6개월 동안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되살려냈다.

‘진짜 사나이’는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도 서서히 잊혀지다 폐지되는 여느 예능프로그램들과 달리 박수 절 때 떠나는 셈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라 휴식을 취한 뒤 ‘시즌3’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짜 사나이’는 출연자들이 국군 예하 부대에 5박 6일~3박4일씩 머물면서 현역 장병들과 함께하는 병영 생활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이다.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별도 연출 없이 군측의 통제에 따라 촬영을 진행한 탓에, 낯설고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보이는 출연자들의 진솔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공감을 끌어냈다.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을 비롯해 박형식, 정겨운, 이시영, 해리, 라미란 등 많은 연예인이 ‘진짜 사나이’를 통해 조명을 받으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등 운동선수 출신 스타들도 가세해 눈물을 뿔뿔다. 연예계의 의리남으로 통하는 배우 김보성은 선 살을 남긴 나이도 있고 ‘상남자 특집’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진짜 사나이’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식을 잘 모르는 ‘뜨거운 감자’인 군대를 소재로 삼은 탓

에 방송 내내 크고 작은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 첫해인 2013년에는 소설가 이외수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려 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이외수의 트위터 발언이 문제 돼 불방했다.

이듬해에는 동부전선 GOP(일반전조)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녹화가 취소됐고, 육군 28사단 병사가 가혹 행위로 숨지는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군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연예인들의 군 체험 영상으로 군대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출연자들의 진지하지 않은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 낮은 훈련 강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나이’는 고정 팬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3년 반을 이어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진짜 사나이’ 후속으로 몰래카메라를 소재로 한 새 예능프로그램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박상민 5년만의 신곡

가슴 적시는 ‘눈물뽕’

가수 박상민이 5년 만에 신곡 ‘눈물뽕’을 발표했다.

28일 소속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눈물뽕’은 2011년 싱글 ‘한 사람을 위한 노래’ 이후 5년 만의 신곡으로 그의 대표곡 ‘해바라기’처럼 심금을 울리는 위로가이다.

박상민의 ‘울지마요’와 이승철의 ‘소리쳐’ 등을 만든 홍진영이 작곡했으며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요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결함을 준다.

가사에는 ‘엄니 말 좀 잘듣지/이제와 후회한다/엄니 먹고 산다는게/너무 어렵습니다/오늘도 난 달려간다/눈물뽕을 삼키며/보란듯이 잘 살거야/내일을 향해 뛰어라’라며 고달픈 일상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겼다.

소속사 측은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박상민도 “가급적 답답한 어조로 노래를



불렀다”며 “수십 번 녹음하면서 자주 마음이 울려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30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지·종석 호흡

‘너목들’ 작가 신작 ... 내년 방영

가수 겸 배우인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우 지·22)가 TV 드라마에서 이종석(27)과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제) 제작사 iHQ는 28일 여주인공으로 배우수지가 낙점됐다고 소개했다.

이 드라마는 누군가에게 다칠 불행한 사건·사고를 꿈으로 미리 보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고자 고군분투하는 검사 이야기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피노키오’를 흥



수지·이종석

행시킨 박해련 작가의 신작으로, 연출은 ‘닥터스’를 만든 오홍환 PD가 맡는다.

드라마는 내년 SBS에서 방송되며, 구체적인 방송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철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동북아 역사 대장정 꿈꾸는 평화 원정대 스페셜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불아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재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미래기획 2030 아프리카에 희망을 심다 (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꽃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	00 역사저널 그날(재) 55 튜튼생활제초	00 자동공복채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개 쇼나타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창사 55주년 특집 MBC와 좋은 친구들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불아성>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낭만닥터 김사부 모아보기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00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세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아시아 풍속 기행 일상 최대의 축제 인도 결혼식>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덩덩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똥뽕이 09:15 출동! 슈퍼원스 09:30 이밤!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출근은 인생, 세시봉 <연말모임 스타다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배추 부대찌개와 숙주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타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출근은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라비 15:20 아웅따웅 귀여워(재) 15:35 요술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똥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똥덩덩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대구의 귀환> 20:50 세계테마기행 <시베리아 겨울연가, - 바이칼호수> 21:30 한국기행 <제주도-행복을 넣고 있습니다> 21:50 EBS 다큐프라임 <사라진 인류-생존>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섬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핵심을 벗어나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60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두어야 할 때이니라. 72년생 기존에 입각하여 착실히 임한다면 성취하리라. 84년생 잡자고 있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0, 88	午	42년생 어림잡아서 처리해도 된다. 54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부르게 될 것이다. 66년생 주변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행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니라. 78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36
丑	49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61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속 태울 필요가 없다. 73년생 완벽을 피하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85년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행운의 숫자 : 98, 11	未	43년생 곧 오간게 쓸 때가 돌아올 것이니 잘 지켜 뒤라. 55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적인 국량이니라. 67년생 위험 요소가 눈에 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79년생 불안전하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1, 45
寅	50년생 조금만 할애하면 가볍게 조차 될 수 있는 문제이다. 62년생 애초에 기대하여 왔던 바에 비해서는 훨씬 불만족한 결과이다. 74년생 아차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86년생 역효과가 날 운수이다. 행운의 숫자 : 06, 77	申	44년생 초기의 형편이 끝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56년생 진력한 다면 배가 되어 돌아오리라. 68년생 만사여의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흐름 대로 임하라. 80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1, 30
卯	51년생 전체적인 판국에 맞는 미래 지향적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63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75년생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도량이다. 87년생 회동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83, 34	酉	45년생 확실한 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7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69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잘 살피자. 81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8, 87
辰	40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52년생 과신하지 말라. 64년생 체면 처리려 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 76년생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인다. 88년생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 행운의 숫자 : 67, 91	戌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다. 58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70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82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9, 43
巳	41년생 과정을 중시하자. 53년생 강력히 추진하라. 65년생 핵심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77년생 결정적인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않음이 이익이다. 89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3, 93	亥	47년생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잘해야겠다. 59년생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해결하면서 얻는 바가 많아서 보람은 느낄 것이다. 71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83년생 무리악어 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영” ☎010-9790-8237			